

오쿠니누시 신화

이 영화에서는 건국과 인연 맺기(사람 간의 유대)의 신인 오쿠니누시의 생애 중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인연 맺기란, 부부나 이웃, 동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농가의 풍작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맺는 좋은 결과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쿠니누시는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주제신(主祭神, 신사의 중심이 되는 신)입니다.

고사기(古事記, 712년)에는 젊은 시절 오나무치라고 불렀던 오쿠니누시가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오나무치가 야카미히메라는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수많은 형들과 함께 이나바(지금의 돗토리현 동부 지방)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오나무치는 여행을 하던 중 피부가 벗겨져 고통스러워하는 토끼를 발견합니다. 형제들 중 오나무치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토끼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착한 마음이 형들의 청혼을 거절해왔던 야카미히메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카미히메에게 거절당해 화가 난 오나무치의 형들은 오나무치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새빨간 거석으로 오나무치를 깔아뭉개고 태워서 재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두 명의 치유의 여신이 마법의 약을 발라 오나무치를 되살렸습니다. 그 후, 기노쿠니(지금의 와카야마현)로 도망친 오나무치는 그곳에서 네노쿠니로 향했고, 선조인 스사노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나무치는 스사노오의 딸 스세리히메와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스사노오는 오나무치를 도와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4가지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가했습니다. 오나무치는 스세리히메의 도움을 받아 4가지 시련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스사노오가 잠든 틈을 타 오나무치는 스세리히메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잠에서 깬 스사노오는 두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스사노오는 떠나가는 둘의 뒷모습을 보며 오나무치에게 오쿠니누시라는 이름을 주면서 잘 다스리라고 외칩니다.

이즈모로 돌아온 오쿠니누시는 형들을 복종시켰고 건국을 위해 힘썼습니다. 지상계의 모습을 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는 오쿠니누시에게 지배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설득하는 사자(使者)를 차례대로 보냅니다. 오쿠니누시는 자식의 신들과 상의한 후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 웅장한 신전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것이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